

음악 교육 동향*

2018년 ‘새학년 음악수업 함께 준비해요’ 교사 연수를 마치고...

한승모

(한국음악교육학회 연수이사 / 강원도교육연구원 파견교사)

2018년 1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학회에서 주관한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교사 연수가 있었다. 2017년 둔대 초등학교에서의 딱 1년 후 같은 날 전라도 광주에서 열린 연수이다. 40명의 교사가 저 남쪽 광주에서 더 나은 음악수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17년 연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장점들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잘 진행해 보고자 하였다. 2017년의 연수의 좋았던 점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을 주제로 수업과 연결한 연수였다는 점, 둘째, 학자와 교사가 함께 준비한 연수였다는 점, 셋째, 초등과 중등이 함께 한 연수였다는 점이다.

다음 2017년 연수의 보충해야 할 과제는 첫째, 교사들의 연구하는 문화를 이끌어 내는데 목적을 두고, 둘째, 여러 음악교육 관련 교사 모임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셋째, 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더 능숙한 TFT팀을 구성하자 하였었다.

2018년 연수를 준비하면서 위의 평가 반성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된 연수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2018년의 연수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연계 주제 중심 연수, 학자와 교사가 함께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는 연수, 초등과 중등이 함께 어울리는 연수를 큰 뼈대로 하였다. 여기에 교사들에게 음악교육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연구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 ‘Q&A’ 시간을 확보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 교육과정 적용의 수업 사례도 ‘질문이 있는 수업’과 같은 내용을 가졌다. 또한, 광주 애음회(음악교육사랑모임),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 등 지역 음악교육 관련 교사 모임과의 관계를 갖고 연수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연수를 준비하는 TFT팀을 2017년 인원에 보완하여 결성, 연수를 진행하였다.

2018년의 영역은 크게 ‘교육과정’, ‘음악놀이’, ‘타악 합주’, ‘다성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2시간은 교수님들에게 교육적 가치와 원리 등을 배우고, 뒤에 2시간은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주제나 학교 급별로 나누어 선택강의를 들었다.

첫날 연수의 모습부터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연수를 준비한 강사 분들과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일차〉

첫 시간은 음악교육과정을 주제로 주대창 회장님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품은 뜻을 이야기 하였다.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은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흐름이 어떤지 알고, 음악과는 어떻게 바라볼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은 교육과정과 그 배경으로 가져야 할 음악교육에 대한 각자의 철학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시간은 경상대 사범대 조대현 교수님의 놀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었다. 음악놀이는 경쟁과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배우고, 놀이와 게임을 구분하여 깊게 이야기 해 보았다. 음악 교육이 갖는 활동과 체험, 겪음이 단순한 승부를 가리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간은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국악놀이를 하였다. 2018년 연수를 준비하면서 급별 구분보다 주제별 선택 강의를 위한 구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놀이만은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중등은 예술 강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영 강사님, 초등은 인천음악수업모임 부회장인 채성희 선생님이 함께 하였다. 말, 신체,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는 놀이 활동이면서도 학교 현장의 적용 사례들도 이야기 해 주었다. 양쪽 모두 선생님들이 즐겁게 참여하였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2일차〉

두번째 날의 주제 영역은 '타악 합주'이다. 첫 시간으로 타악 합주가 교육적으로 왜 중요한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주교대 윤관기 교수님이 이야기를 꺼냈다. 학생들과 활용 가능한 이론적 배경과 좋은 감상 자료들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간단한 악보를 보며 다양한 타악 합주 체험도 하고, 둥글게 다같이 앉아 드럼서클 활동도 해 보았다. 음악이 갖는 표현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함께 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타악 선택 수업 시간이었다. '몸타'에 장여울 선생님, '킵타'에 박용삼 선생님, '오르프 악기를 활용한 타악합주'에 강명신 선생님의 강의가 있었

다. 수업 주제에 맞게 강의실을 배분하고, 각자 수업 준비를 하였다. 컵타의 인원이 적어 걱정을 하였는데, 박용삼 선생님이 학교에서 적용한 사례들로 알차게 강의를 해 주셨다. 몸타 수업 교실은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다들 매우 좋아하면서 학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를 경험하였다. 강명신 선생님은 수업준비만 30분이 걸린다. 합주를 할 적합한 위치로 수십 개의 악기를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 아이들과 그렇게 음악을 준비하고 즐길 것이다. 세 강의실이 시끌벅적하다. 선생님들이 현장에 돌아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잠자고 있는 리듬을 확실히 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 시간에는 부산에서 온 박진홍 선생님이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수업 실습을 나눠주셨다. 음악평론가, 동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음악수업을 더 풍요롭게 가꿔 가신다. 수업을 위한 자리 배치부터 변화였다. 협동 학습, 토론 수업, 거꾸로 교실이 음악수업에 접목한 듯하다. 감상 수업과 생활화 수업에 적용할 만한 질문들을 함께 만들어보고 대답하면서 강의를 이끌어 가신다.

끝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갖는 특징을 간략하게 이야기 하였다. 역량이 중요하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하고, 교과연계를 가급적 더 하고,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이야기한 후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는다.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때도 있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막연히 함께 선생님들의 답답함을 듣기만 해도 어려운 시간인데, 조금이나마 객관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

〈3일차〉

세번째 날의 주제는 ‘다성부 활동’이다. 다성부 음악활동은 리듬과 음을 활용한 조금은 복잡한 복합 활동이다. 몇 가지의 음악요소를 고려하고 충분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광주교대 홍승연 교수님이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준비를 잘 해 주셨다. 다성부 음악이 갖는 음악적인 필요성과 음악 외적인 필요성 모두 다뤄주신다. 음악을 통해 나,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음을 느낀다.

두 번째 시간은 다성부 활동 선택 수업 시간이다. 초등 아카펠라, 중등 아카펠라, 학교 합창지도로 세반을 나누었다. 중등 아카펠라는 서울중등아카펠라교육연구회 박대현 선생님이, 학교 합창은 광주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윤영문 지휘자 선생님이 진행을 맡아 주셨다. 실습위주로 직접 노래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모두 준비하셨다. 초등 수업을 진행하느라 다른 수업을 못 보았다. 초등 시간에 인제에서 함께 했던 한샘가온 친구들의 사례를 나누었다. 실습에는 같

은 화음 노래, 양손 기호로 노래 부르기를 하였다. 다성부 음악 활동의 배려와 나
눔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최은아 선생님과 음악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악수업에
대한 질문과 답이 이어진다. 먼저 좋은 음악수업에 대한 숙제를 이야기를 꺼낸
후 선생님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었다. 음악수업의 본
질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다. 모든 음악교사들이 꼭 되새겨 보면 좋을 이야기
들이다. 연수 시작을 교육과정과 음악교육으로 열었고, 마지막을 음악수업과 음악
교사의 다짐과 생각을 정리하며 닫는다.

이렇게 연수를 모두 마치고 설문지를 받았다. 30여명의 선생님들의 설문을 해 주
었는데 전반적 평가에 4~5명은 ‘ 좋음’에 표시를 하였고, 25여분의 선생님들은 다
‘매우 좋음’으로 해 주었다. ‘보통’이나 ‘노력 요함’은 아예 없었다. 2017년 연수보
다도 월등히 높은 결과이다.

도움이 되거나 바람직한 교과 및 강사를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모든 교과와 선
생님들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5번 이상 언급된 과목도 6개나 되었다. 도움이 적다
고 생각 된다고 언급된 교과는 세 과목 이었다. 그중 한과목만이 3번 언급 되었
다. 모든 과목이 긍정적 평가가 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실습위주의 활동을 좋아하였다. 활동하기 직전에는 조금은 귀찮아
하고, 시작하고 나서도 따라서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어도 일단 몸을 쓰고 실컷
해 보았을때 배움이 크다는 것을 선생님들의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각 주요 활동 및 영역에 대한 교육적 개론이나 배경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실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는 당장 내년에 써야할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자주 바뀌는
교육과정과 다양해지는 곡, 활동 등에 대처 하려면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
도 중요하다. 적당한 비율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숙제가 생겼다.

전반적으로 객관식이나 주관식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회에 대한 홍보
도 하게 되었고, 연수에 대한 내년 참여도도 기대할 수 있었다. 학자들의 연구 모
임 뿐 일거라 생각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학회가 교사들과의 건강한 연수를 고민
하고 실천하는 선 기능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모습도 보일 수 있었다.

2017년의 개선점을 바탕으로 2018년에 만족도 높은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다.
2019년에도 40여명의 선생님들과 1월 셋째 주 평일 3일 동안 이 교사 연수를 진

행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연수 진행을 위해서 학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면서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학회의 여름 세미나만큼 교사 연수를 중요 사업으로 여기고 인력과 자본이 함께 하여야 하겠다. 교사 연수를 시도교육연수원에 승인 받는 일부터, 강사 섭외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특히 교사 연수를 승인 받는 일은 평일 낮에도 시간을 움직여야 한다. 또 지역마다 승인 조건이 달라서 이 또한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기도 하다. 연수를 진행하면서도 3일간 이 장소에 매달려 선생님들의 연수 이수증과 교육청 관련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 사전 사후로 교사와 교수, 간사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일시와 장소를 정기적, 규칙적으로 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짝수년도에는 지방에서, 홀수년도에는 서울경기에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상설화하고, 직무연수가 혹 못되더라도 자율 연수로라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와 같이 연수 일정을 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미리 연수를 듣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연수에 대한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미리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학회 내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의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외부 홍보나 SNS홍보를 통해 온 교사들이다. 학회에 교사 회원이 100여명이 넘고, 많은 교수님들의 대학원생 교사 제자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학회 내부 홍보를 통해 온 사람이 불과 다섯 명도 안 되었다. 이는 학회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학회 회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준다. 많은 학회 교사 회원이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함께 연수를 준비한 선생님들에게 정말 고맙다. 김일영 선생님이 차분하게 서류 처리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정리해주셨다. 최은아 선생님의 기획단계 자문이 연수설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2년간 계속 원고 편집과 연수생 관리라는 가장 피곤한 일들을 도맡아 웃으며 해주시는 김혜연, 최유리 선생님도 참 고맙다. 또 애음회의 정일재, 전남중등음악교육연구회의 김수임 선생님의 홍보와 광주 현장 진행이 없었다면 이 연수는 20명도 모으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 멀리서 응원 해주신 조은희 선생님도 내년에는 더 큰일 함께 하시길 바라본다.

한국음악교육학회 교사직무연수는 이렇게 현장 교사들에게 여러 이유로 큰 힘

이 되고 있다. 한국음악교육학회가 학회 회원들을 위한 사업과 함께 한국음악교육을 위해 대승적인 일을 하는 현장으로서 역사에 기록된다. 이런 여러 사업들로 꾸준히 더 많은 학교 현장과의 접점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한다.

2년간 연수를 지원해주신 주대창 회장님, 박지현 총무이사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음 회장단에서도 연수에 큰 관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수생들의 후기를 더 하며 마친다.

-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음.
- 새 학년 음악수업에 대한 설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론 및 수업 실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둘 다 알찬 연수였습니다.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고등에 맞춰진 연수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악교육에 대한 안목을 넓혀 주었습니다.
- 매우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런 연수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선생님, 강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